

## 국민숙의토론 실패국민발안 fail initiative

대한민국은 거대한 숲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무다. 나무들은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 자라왔고, 태양과 바람, 그리고 물은 아낌없이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덕분에 지난 50년,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다.

그러나 숲에 적신호가 드리워지고 있다. 숲의 과실은 더 이상 시민 모두를 배불릴 수 없게 되었고, 숲의 생명력은 점점 고갈되고 있다. 햇빛은 골고루 닿지 못하고, 바람은 통하기 어렵다. 곳곳이 막혀있어 점점 생명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희망적인 미래를 마음껏 기대할 수 없어졌다. 성공만을 위해 압축적으로 성장해 온 우리에게 예견된, 아니 필연적인 실패다.

실패는 종착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방향을 잡고 나아갈 준비를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전국 11개 지역, 153번의 오픈테이블, 10번의 엔딩테이블을 거쳐, 15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실패의 경험을 복기하며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전국적인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는 미래를 향한 나침반으로서 다음의 10가지 범주, 48개의 사회적 과제를 제안한다. 실패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듯이, 해결 역시 공공, 시장, 시민이 함께 해야 하는 몫이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상상하고, 더 포용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가능성의 크기는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힘주어 강조한다.

하나, 우리는 당장의 성장에 몰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를 소홀히 하는 실패를 범했다. 앞으로는 우리 국토가 다음 세대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지속가능한 환경,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정책은 물론 시민교육, 시민참여와 같은 기반도 조성되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지구에 잠시 머무르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 주요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 성과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낙수효과를 택해왔다. 일부 지역이 발전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지역 간 격차 심화, 지역 내 인구감소와 같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과거의 성공적인 정책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실패가 될 수 있다. 이제 지역은 통하고, 사람은 동하는 교류 중심의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모든 지역은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지역발전의 잠재력은 주민에게 있다. 주민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주민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 우리는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지 못한 채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목도하고 있다. 앞으로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자존을 지키면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고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일거리를 찾고, 공공은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어르신들이 지혜와 경륜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넷, 우리는 성과주의를 앞세운 결과, 과도한 노동 시간과 경직된 조직 문화가 만연한 일터라는 실패를 낳았다. 대대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되는 노동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사람을 돌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힘을 합쳐 가장 기본적인 법을 지키고, 일터를 개혁하는 밑거름을 닦아야 한다. 누구나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다섯,** 우리는 과정을 경시하고 결과에 집중한 나머지 실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실패에 인색한 사회를 만들었다. 실패 속에서 질문들을 발굴하는 것보다 모범답안을 정해두기에 급급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주저하게 되면서 사회는 점점 정체되고 있다. 패자부활전과 같이 실패를 긍정하는 공공정책이 선도적으로 추진된다면 지금보다 실패에 관대하고, 재도전을 격려하는 활력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섯,**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장애에 따른 차별과 배제는 물론 불가피한 경제적 부담도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실패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사회와 완전히 분리된 질병과 장애는 있을 수 없기에 앞으로 모든 정책에서 포용적인 건강·복지정책이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공동체 기반의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원과 협력하고, 실천해야 한다.

**일곱,** 우리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동안 문화예술을 도구로만 인식하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앞으로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창인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자와 종사자를 존중해야 한다. 공공이 판을 열고, 그 판 위에서 문화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다시 판이 확장되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여덟,** 우리 교육은 대입과 취업이라는 한정된 목표에서 일차적 실패를, 이로 인해 다양한 진로 모색과 배움의 기회가 차단되었다는 데에서 이차적 실패를 겪고 있다. 주입식과 과도한 경쟁적 교육에서 벗어나 이전과는 다른 새 시대의 가치와 규범, 지식을 담는 교육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 학교, 지역사회, 학생, 시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아홉,** 우리는 공익활동가를 일회적인 자원봉사자 또는 동원의 대상으로 인식해 신뢰관계 형성에 실패한 경험이 적지 않다. 우선적으로, 공공은 공익활동가를 국정 운영의 주요한 파트너로 존중하며, 공익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익활동가가 공공선을 지향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 사회적 인정,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특히 청년, 여성들이 공익활동과 사회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열린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열,** 우리는 그동안 정책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시민이 소외되는 정책의 실패 사례를 갖고 있다. 앞으로는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신뢰와 협력의 민관 협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시민은 발 딛고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목을 지녔다. 행정은 이를 가장 잘 지원 수 있는 그릇과 역량을 갖고 있다. 서로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 그 자체가 협치이며, 그 성과가 공동체에 고르게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시계와 나침반을 동시에 바라보자. 달라진 시대를 인식하고, 과거로 향하는 고장난 나침반을 재설정하자. 우리가 미래의 나침반을 맞춰나갈 때, 우리는 상상조차 못 했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있을 것이다.

**2018년 9월 16일 실패국민발안인 일동**

## 10가지 범주, 48개의 사회적 과제

### 하나. 환경/에너지

- 1) [서울] 일회용 컵 사용금지 시행 2주째... 일반 커피숍 매장사용 여전한가! 실패하는 이유는?
- 2) [충청]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 실패
- 3) [전남] 무더위 속 에어컨 가동의 실패 - 에너지전환과 누진세 개혁방안

### 둘. 지역(불균형/소외)

- 4) [강원] 원주살이의 실패 : 혁신도시 사람들
- 5) [경북] 농촌(지방중소도시) 생활기반의 평준화
- 6) [전북] 교육 “목표는 서울대에요”
- 7) [전남] 소통에 실패하게 하는 지역 문제관찰 - LocalChangeProject (바뀌살기프로젝트)

### 셋. 일자리

- 8) [서울] 청년들의 삶(일과 삶의 균형)
- 9) [경기] 진로적성에 상관없이 청년들을 취업에 내몰고 있는 정부정책 개선 - 청년 진로 탐색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필요
- 10) [경기] 청년공공일자리 창출에 있어 체력검정이 필요한 취업 사교육비용 절감에 관한 제안
- 11) [경북] 청년실업과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 환경에 대한 토의 - 청년의 아르바이트 그리고 근로환경
- 12) [인천] 노인의 일자리

### 넷. 삶의 질

- 13) [인천] 보육교사 노동환경개선
- 14) [서울] 일하는 우리의 건강함 실패
- 15) [충청]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
- 16) [전북] 계획적인 소비 실패 사례 - 충동구매, 과소비
- 17) [전남] 왜 휴일날 휴식에 실패하는가 - 안식월 제도의 확대

### 다섯. 사회문화(소통/실패극복/사회분위기)

- 18) [제주] 나는 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까?
- 19) [경북] 단체 내에서 소통의 중요성 - 조직 내 소통의 실패, 청년들은 왜 모이지 않는가
- 20) [충청]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던 시간, 순간들
- 21) [경남] 사회적으로 다양성 인정의 실패 - 정체성을 드러내는 등 자신에 대해 그대로 이야기할 때 불편하거나 어려운 느낌을 가짐
- 22) [경남] 당사자가 실패를 계속하게 만드는 사회운영의 실패 - 실패당사자가 실패를 계속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적 한계와 상황들
- 23) [경기]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인생의 기회
- 24) [전남] 실패를 규정하는 개인 관점의 실패 - 실패전환학교 'U턴스쿨'

## 여섯. 보건/복지

- 25) [경기] 봉사의 의미를 잃어버린 의무봉사제도의 한계
- 26) [경기] 장애, 비장애 혼합 단체에 대한 비현실적 지원 대책과 개선
- 27) [인천] 청년건강권 확보

## 일곱. 문화예술

- 28) [서울] 흥대 앞 문화예술의 실패?
- 29) [전북] 한국사회에서 순수예술은 과연 가능한가?(전통음악계열을 중심으로)
- 30) [전북] 문화 “예술창작물의 정당한 대가 지불”
- 31) [경기] 재능기부방지법(예술인기본법)
- 32) [충청] 대전의 청년들, 문화예술을 즐기거나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의 실패

## 여덟. 교육

- 33) [서울] 공교육의 실패와 좌절
- 34) [경남] 진로교육의 실패 - 한정적인 진로에 대한 시스템 및 정보들이 학교활동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전공 결정 및 취업에서도 영향을 미침
- 35) [경기] 청년의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기관과 교육기관의 제도적 지원
- 36) [충청] 꿈을 빌리게 만드는 교육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 아홉. 활동가(청년/여성/시민/지역)

- 37) [인천] NGO 여성단체의 재정마련
- 38) [경북] 청년활동가들의 고민 - 왜 청년들은 모이지 않는가?
- 39) [충청] 활동가들의 어려움, 시스템의 실패
- 40) [경남] 문화기획활동의 실패 -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다 보니 문화기획에서 새로운 시도나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 힘들어 짐
- 41) [제주] 돈이 안 되지만 하고 있나요?
- 42) [충청] 지방형 문화청년 그룹들

## 열. 거버넌스

- 43) [서울] 공공부문 민간위탁 제도의 점검 : 노동의 관점에서 정책실행의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 44) [서울] 서울시 마을기업 공간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평가
- 45) [서울] 마을에서 공간을 지속한다는 것은...
- 46) [경기] 청년과의 거버넌스
- 47) [전남] 의견수렴만 있고 반영에 실패하는가 - 예산 사용 운영지침마련
- 48) [충청] 청년위원회의 문제

## 실패국민발안인

강경숙, 강귀웅, 강귀웅, 강근성, 강남희, 강동준, 강명숙, 강명신, 강명신, 강무성, 강무성, 강미경, 강미숙, 강미화, 강민혁, 강보배, 강상오, 강석호, 강선양, 강선양, 강성복, 강성진, 강순영, 강승구, 강승희, 강신호, 강연숙, 강영희, 강유란, 강유란, 강유정, 강유하, 강은구, 강정진, 강종훈, 강종훈, 강지윤, 강지윤, 강지혜, 강하나비, 강한샘, 강한샘, 강한샘, 강현희, 강혜영, 강화원, 강효정, 고광일, 고대홍, 고상근, 고석균, 고소영, 고소영, 고영혜, 고영혜, 고은주, 고현진, 고희빈, 공승희, 광내영, 광부강, 광준철, 광준철, 구삼본, 구설연, 구세주, 구영애, 권나현, 권나현, 권미소, 권보미, 권보미, 권사랑, 권사랑, 권성대, 권영자, 권영하, 권우, 권우, 권인아, 권인호, 권혁태, 권희주, 기대훈, 길은솔, 김강민, 김강성, 김강욱, 김강현, 김경복, 김경원, 김경원, 김경은, 김경진, 김경혜, 김관균, 김관훈, 김광일, 김광일, 김광일, 김광진, 김기완, 김기중, 김기호, 김기홍, 김나솔, 김나솔, 김나솔, 김나영, 김난희, 김남희, 김다엽, 김다영, 김다예, 김다현, 김다희, 김다희, 김다희, 김대찬, 김대한, 김대환, 김대환, 김덕윤, 김도영, 김동욱, 김동욱, 김동욱, 김동의, 김동인, 김동인, 김동인, 김동주, 김동철, 김동현, 김동훈, 김동희, 김동희, 김두리, 김두홍, 김명재, 김명주, 김미리, 김미리, 김미선, 김미선, 김미선, 김미수, 김미애,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정, 김민경, 김민규, 김민규, 김민수, 김민숙, 김민숙, 김민숙, 김민재, 김민준, 김민지, 김민화, 김민음, 김반야, 김버들, 김범석, 김병권, 김보라, 김보라, 김보윤, 김복남, 김봉기, 김상미, 김상복, 김선규, 김선아, 김선아, 김선우, 김선호, 김선호, 김선호, 김선희, 김설인, 김설하, 김성무, 김성범, 김성섭, 김성원, 김세은, 김세은,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솔지, 김수경, 김수경, 김수나, 김수나, 김숙영, 김슬기, 김슬기, 김슬기, 김승모, 김승모, 김시현, 김신애, 김아라, 김아람, 김애니, 김연길, 김연길, 김연길, 김연길, 김연민, 김연희, 김연희, 김영, 김영구, 김영남, 김영남, 김영란, 김영빈, 김영주, 김영주, 김영주,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영진, 김영진, 김영화, 김영희, 김예랑, 김예인, 김예진, 김예환, 김옥희, 김완, 김용구, 김용국, 김용이, 김윤정, 김웅진, 김원주, 김원준, 김유민, 김유선, 김유숙, 김유진, 김윤미, 김윤선, 김윤정, 김윤정, 김윤환, 김윤희, 김은경, 김은옥, 김은우, 김은지, 김은지, 김은지, 김은현, 김은혜, 김이선, 김인경, 김인숙, 김인숙, 김일영, 김재연, 김재환, 김정숙,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호, 김종남, 김종선, 김종찬, 김종혁, 김종호, 김종호, 김주미, 김주희, 김주희, 김준기, 김준서, 김준태, 김준하, 김준하, 김지민, 김지민, 김지수, 김지수,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희, 김지희, 김진, 김진명, 김진명, 김진배, 김진석, 김진영, 김진일, 김진주, 김진환, 김진희, 김창환, 김형자, 김춘교, 김춘화, 김태경, 김태경, 김태관, 김태우, 김태욱, 김태은, 김태현, 김태호, 김태희, 김토일, 김푸름, 김푸름, 김하나, 김한상, 김한상, 김한진, 김햇살, 김현미, 김현서, 김현서, 김현승, 김현신, 김현익, 김현익, 김현정, 김현지, 김현지, 김현지, 김현철, 김현철, 김현철, 김형준, 김형준, 김형철, 김형철, 김혜민, 김혜민, 김화목, 김호준, 김호진, 나경호, 나동혁, 나상훈, 나수웅, 나예원, 나예원, 나예원, 나효선, 남은진, 남지공, 남지공, 남지공, 남현욱, 남현욱, 노경민, 노경범, 노주비, 노진혁, 노해운, 노화연, 노희숙, 노희승, 도명숙, 도명숙, 라경민, 류경민, 류광수, 류광수, 류미화, 류부영, 류설아, 류설아, 류태희, 류현주, 맹정민, 맹진욱, 명경희, 문대영, 문대영, 문상철, 문상철, 문서현, 문성남, 문성은, 문영인, 문예진, 문예진, 문재월, 문현영, 민복기, 민복기, 민순옥, 민양운, 민현우, 박건도, 박경준, 박경준, 박경철, 박경호, 박광섭, 박규남, 박근성, 박근성, 박근혜, 박금숙, 박꽃별, 박다듬, 박다영, 박다영, 박다영, 박도현, 박명희, 박명희, 박미자, 박미자, 박민수, 박상열, 박사론, 박선주, 박성수, 박성우, 박세롬, 박세윤, 박소연, 박수련, 박수련, 박수빈, 박수빈, 박수연, 박수진, 박수진, 박수진, 박승현, 박승현, 박승환, 박승환, 박신영, 박영주, 박은, 박은선, 박은선, 박은주, 박은주, 박재포, 박정민, 박정빈, 박준성, 박준호, 박지연, 박지영, 박지윤, 박지은, 박지은, 박진갑, 박찬희, 박철희, 박태신, 박태준, 박현배, 박현수, 박현수, 박형준, 박혜림, 박혜영, 박혜진, 박홍식, 박희정, 박희정, 박희정, 방규빈, 방연주, 방연주, 방재현, 방재현, 방재현, 방재현, 배경문, 배민, 배소현, 배연주, 배은정, 배은정, 배정현, 배진영, 배진영, 배혜림, 백가현, 백새미, 백새미, 백새미, 백석영, 백승호, 백은진, 백지애, 백해영, 변경미, 변경미, 변경미, 변경미, 복동환, 복동환, 복동환, 복동환, 복동환, 사승봉, 서강원, 서강원, 서민호, 서민호, 서연수, 서영동, 서영석, 서원울, 서원울, 서은덕, 서진렬, 서한나, 서한나, 서해미, 석류아, 선경수, 선민지, 설재균, 설재균, 성경숙, 성낙경, 성낙경, 성민정, 성은미, 성은미, 소영식, 소종영, 손민근, 손민근, 손보경, 손상호, 손은성, 손인정, 손재호, 손정훈, 손정훈, 손정훈, 손창균, 손하원, 손현지, 송동우, 송동우, 송문식, 송송이, 송은지, 송은지, 송이석, 송인희, 송재민, 송주찬, 송주희, 송지호, 송창권, 송훈화, 송해준, 신경아, 신대철, 신동명, 신동우, 신동은, 신록, 신미선, 신방식, 신석호, 신성기, 신윤희, 신정은, 신준섭, 신태연, 신태정, 신행우, 신헌원, 신헌철, 신헌영, 신헌영, 신헌원, 신헌원, 신헌원, 신희승, 신희승, 심가영, 심가영, 심가영, 심보라, 심보라,

심보라, 심상용, 심슬기, 심영선, 심완섭, 심윤희, 심인성, 심재신, 심재신, 심회령, 심회령, 안대희, 안미숙, 안소희, 안수빈, 안수진, 안수진, 안윤솔, 안은비, 안재만, 안재성, 안정옥, 안정옥, 안정희, 안주형, 안태호, 안태호, 안태호, 안태홍, 안현일, 안혜정, 안혜정, 양권태, 양귀순, 양귀순, 양다연, 양명옥, 양민주, 양민주, 양민주, 양세영, 양연지, 양원훈, 양현정, 양현정, 양효정, 양희주, 어마루, 어마루, 엄관용, 엄정열, 엄창환, 엄창환, 엄창환, 엄희정, 여송하, 여송하, 여운태, 여운태, 여지선, 여창욱, 여창욱, 염인정, 염태진, 오광문, 오국환, 오기순, 오다슴, 오다윤, 오보람, 오세광, 오승환, 오승환, 오유진, 오은경, 오은경, 오태영, 오태풍, 오태풍, 오한서, 오현지, 용상순, 용정순, 우경오, 우수정, 우안나, 우영선, 우정표, 우정표, 우지훈, 원화식, 유광재, 유근선, 유동범, 유명상, 유명상, 유무현, 유민석, 유민아, 유병주, 유설, 유승완, 유은옥, 유은옥, 유은옥, 유은옥, 유은옥, 유은옥, 유인수, 유재균, 유정아, 유정탁, 유정하, 유정현, 유정혜, 유종범, 유종범, 유지광, 유창선, 유한별, 유한아, 윤나영, 윤동희, 윤민섭, 윤상근, 윤성수, 윤성수, 윤슬기, 윤안나, 윤이슬, 윤재환, 윤정성, 윤준혁, 윤현숙, 윤혜영, 은민기, 은민기, 이강희, 이경미, 이경민, 이경용, 이경주, 이경준, 이경태, 이경태, 이경하, 이광희, 이기수, 이기영, 이기영, 이기철, 이기택, 이나래, 이다예, 이다은, 이다인, 이대한, 이대한, 이대한, 이동준, 이동철, 이동희, 이라선영, 이라선영, 이명재, 이목경, 이미라, 이미소, 이민규, 이민주, 이민호, 이범석, 이병산, 이병준, 이보리, 이상미, 이상민, 이상화, 이상훈, 이새은, 이선우, 이선재, 이선정, 이설, 이설녀, 이성윤, 이성직, 이성호, 이소미, 이송하, 이수경, 이수경, 이수연, 이수연, 이수정, 이수지, 이숙희, 이슬기, 이승석, 이승재, 이승재, 이승준, 이승준, 이아란, 이아림, 이어라, 이연의, 이영훈, 이영희, 이영희, 이오이, 이용대, 이용범, 이용범, 이용욱, 이용훈, 이용훈, 이원기, 이원기, 이유리, 이유미, 이유미, 이유선, 이유선, 이유호, 이윤복, 이윤복, 이윤희, 이은미, 이은미, 이은미, 이은영, 이자인, 이재경, 이재승, 이재원, 이재원, 이재원, 이정규, 이정규, 이정규, 이정길, 이정길, 이정숙, 이정아, 이정우, 이정일, 이정일, 이정현,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제학, 이종미, 이종필, 이주희, 이준오, 이준오, 이준희, 이지니, 이지니, 이지민, 이지영, 이지영, 이지원, 이지은, 이지은, 이지현, 이지현, 이지혜, 이진, 이진영, 이찬우, 이창근, 이창원, 이창환, 이철우, 이철우, 이청연, 이청하, 이춘, 이충만, 이태경, 이태경, 이태식, 이태호, 이태호, 이태화, 이태화, 이태희, 이풀잎, 이하연, 이한솔, 이한수, 이한열, 이해민, 이행지, 이현의, 이현주, 이현주, 이현채, 이형구, 이혜림, 이혜림, 이혜주, 이혜현, 이화수, 이화영, 이흥일, 이흥일, 이흥일, 이흥일, 이희숙, 이희주, 임강백, 임경식, 임경식, 임균진, 임명규, 임미소, 임미소, 임상렬, 임성빈, 임소영, 임승관, 임승관, 임영민, 임윤환, 임재운, 임재운, 임재현, 임재현, 임정순, 임종윤, 임지성, 임지성, 임지영, 임지영, 임현섭, 임현정, 임혜진, 장규진, 장두영, 장미정, 장석용, 장석용, 장수경, 장수정, 장연진, 장영진, 장용석, 장원조, 장은경, 장은진, 장은진, 장은진, 장정미, 장종욱, 장지민, 장지현, 장진식, 장진우, 장철수, 장초희, 장혁수, 전다은, 전단비, 전미옥, 전민수, 전병준, 전보경, 전상희, 전선영, 전선영, 전선영, 전세이라, 전소윤, 전소희, 전승현, 전승훈, 전예진, 전우재, 전우재, 전은찬, 전은찬, 전인호, 전자영, 전정현, 전정현, 전정현, 전종현, 전지윤, 전진희, 전찬혁, 전찬혁, 전형준, 전해린, 전해린, 전희정, 정경님, 정근일, 정누리, 정문식, 정문식, 정미영, 정미영, 정미현, 정미현, 정민경, 정상민, 정상훈, 정상훈, 정성민, 정성호, 정성호, 정솔, 정솔, 정양미, 정여진, 정유미, 정유미, 정은경, 정인화, 정재환, 정재환, 정정림, 정지선, 정지선, 정지선, 정진세, 정하나, 정하나, 정하나, 정항용, 정항용, 정항용, 정현주, 정혜림, 정화빈, 정휘목, 정휘목, 정희연, 정희연, 제갈동호, 제갈동호, 제갈동호, 제갈동호, 조건희, 조건희, 조건희, 조경만, 조경모, 조경모, 조기수, 조기수, 조동호, 조민지, 조선희, 조선희, 조성현, 조영득, 조영찬, 조용진, 조인숙, 조정희, 조찬희, 조찬희, 조태봉, 조태봉, 조현진, 조형준, 조형준, 조혜수, 조혜원, 조혜원, 주기환, 주동섭, 주민경, 주한빈, 주한빈, 주한빈, 지경숙, 지민규, 지민규, 지민규, 지민준, 지민준, 지수산나, 지수진, 지수진, 지승욱, 지예슬, 지의환, 지푸르나, 지현수, 지현탁, 지현탁, 지혜진, 진형익, 진형익, 진형익, 차대근, 차선우, 차희주, 채선인, 천경일, 천민호, 천인우, 천현주, 최가영, 최경숙, 최경숙, 최광운, 최광운, 최광운, 최광운, 최근호, 최동녘, 최민선, 최민준, 최보연, 최선아, 최선희, 최성욱, 최수정, 최수정, 최승혜, 최승호, 최연두, 최연우, 최영교, 최은석, 최은석, 최이성, 최이성, 최장현, 최정라, 최정원, 최정원, 최정인, 최종성, 최주희, 최주희, 최지은, 최진숙, 최창원, 최한별, 최한별, 최호진, 최호진, 최홍철, 최환, 추현우, 허광성, 하선우, 하재은, 하정우, 하정필, 하현일, 한경아, 한나리, 한동진, 한송희, 한송희, 한송목, 한송석, 한송석, 한송후, 한예림, 한예림, 한원선, 한유진, 한재욱, 한정우, 한정우, 한지하, 한지하, 한지하, 한지하, 한혜린, 한혜린, 한희정, 한희종, 한희종, 함경록, 함승호, 함예담, 허두영, 허명희, 허명희, 허선희, 허유진, 허정길, 현우식, 현재민, 홍명길, 홍민기, 홍선미, 홍선미, 홍선여, 홍선영, 홍세나, 홍세나, 홍승표, 홍은지, 홍주리, 홍주리, 홍주연, 황귀윤, 황다운, 황선철, 황소연, 황소연, 황수진, 황용진, 황은진, 황철호, 황현정, 황혜림, 황혜진, 황호완 외 참여하였으나 이름을 밝히길 원치 않는 129명